

ON AIR 

뉴스 9



좁아지는 대출문…‘능력만큼 대출’ 조기 시행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이렇게 서비스업 위주로 3분기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보다 감소하며 우리 경제 성장세를 주춤하게 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세계적 공급망 차질 속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운송장비를 사들이는 설비투자나 토목공사 같은 건설투자가 일제히 줄었습니다.

그나마 3분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수출입니다.

꾸준한 성장 속에 올해 무역 규모는 역대 최단 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을 종합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3%.

1분기 1.7%, 2분기 0.8%와 비교해 성장세가 주춤해진 데다 시장이 예상했던 0.6% 수준과도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 4% 달성이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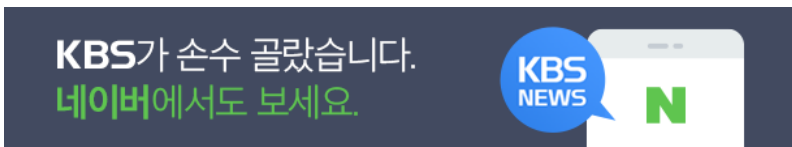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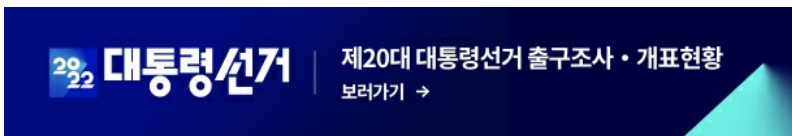
[황상필/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 "(2차 추경) 지원 규모는 34.9조 원 으로 지난번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간소비 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질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김진호 기자 hit@kbs.co.kr
김진호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
기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대...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옛새패...전체 진화율 70%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검게 타 버린 ‘송이버섯’ 주산지...올가을 ‘금송이’ 될까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